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22(土)	23(日)
	
맑은 후 구름 많음 2/14℃	흐리고 비 7/14℃

News

- 호남권 선도산업 수정 ②
- 조문영 양의 공부 비결 ④
- 승마 '셋별' 백두산 ⑩

Books

- 법정 '아름다운 마무리' ⑭

Entertainment

- 발라드 언니들의 귀환 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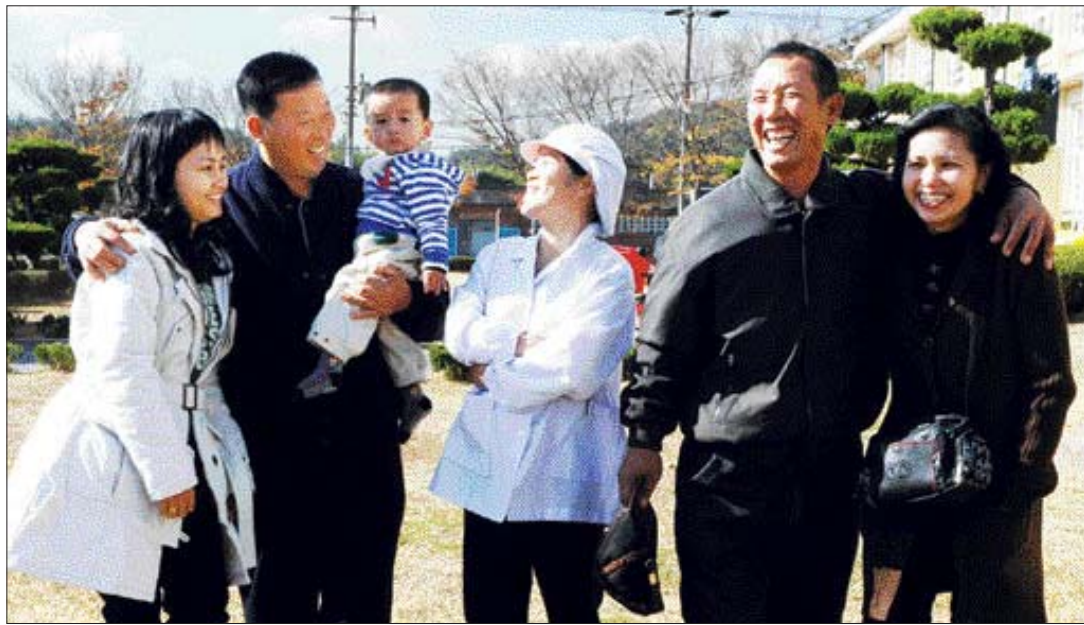
- 영화, 뮤지컬로 다시 제작 ⑨

Wellbeing

- 식품 탐구 - 아몬드 ⑬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한국문화를 익히면서 당당하게 적응하고 있는 결혼 이주 여성들. 레 향·김형수씨 부부, 이숙향씨, 조성오·아이다 G 마마리아스씨 부부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우리도 당당한 한국인”

나주 동강면 곡천리 레 향·이숙향·마마리아스씨의 코리안 드림

결혼 이주 여성 3명이 한 마을에 살면서 당당한 한국인으로 정착, ‘코리안 드림’을 실현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시골 마을을 활력 넘치는 동네로 탈바꿈 시켜 주민들로부터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다. 나주시 동강면 곡천1리의 레 향(27·베트남)·이숙향(30·조선족)·아이다 G 마마리아스(39·필리핀)씨 등 3인방이 그 주인공.

시골 마을의 활력소

지난 2006년 결혼과 함께 한국에 온 레 향씨는 요즘 살 맛이 난다. 갓 돌 지난 아이 재롱을 보거나 남편 김형수(49)씨와 여행을 다니면서 한국에 사는 재미에 푹 빠져 있어서다. 동네 아줌마들과 모여 앉아 어설픈 한국어와 베트남어를 섞어가며 수다 떠는 재미도 쏠쏠하다.

레 향씨는 “한국 음식도, 날씨도 좋고 특히 남편과 아이가 너무 좋다”며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두려워 많이 울었지만 지금은 훨씬 더 많이 웃는다”고 말했다. 이숙향씨는 지난 1998년, 마마

리아스씨는 지난 2001년에 각각 이곳 곡천1리로 시집왔다. 나주 동강초등학교에서 급식조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숙향, 시어머니를 모시며 여섯 살 난 딸을 돌보다 보면 어떻게 하루가 갔는지 모르겠다는 마마리아스씨는 결혼기에는 주변에서 쉽게 마주칠 수 있는 여느 한국인 주부와 다르지 않다. 한국음식을 손쉽게 만들고 웬만한 사무리를 구사하는 것까지 영락없는 전라도 사람들이다.

동네 모임에서 다양한 언어를 섞어가며 이색 에피소드를 쏟아내기도 하면 듣는 주민들의 웃음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뛰어난 음식 솜씨를 갖춘 이숙향씨는 필리핀·베트남 등 다문화 음식까지 맛볼 수 있는 것만 덩어다. 세 사람이 동네의 활력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처음부터 쉽게 한국 생활에 적응했던 것은 아니다. 처음엔 집안만 맴돌았다. 낯선 한국에 시집과 아이를 낳고, 아내와 엄마로 사는 것조차 힘들었다. 하지만 “결혼 이주 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려면 친구를

사귀면서 어울리는 모임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에 새로운 환경에 당당히 맞서기 시작했다.

한국음식 대회 은상

레 향씨는 남편의 적극적인 배려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고 지난 4월에는 영산포 흥어축제에서 열린 ‘외국인 주부 한국음식 경연대회’에 출전, 찰밥과 나물메뉴로 한 상차림으로 은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이들에 대한 편견, 차별 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숙향씨는 “한국에서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은 편견”이라고 했다. 이주여성들을 보고 ‘팔려온 신부다. 돈 벌러 친정에 보내려고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 당당하게 적응하고 있는 이들 “3총사”의 꿈은 소박하다. “아이들이 컸을 때는 맘고생하지 않고, 차별받지 않도록 사회가 많이 변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나주=김지을·정철현기자 dok2000@

가계 소득은 제자리인데...

이자·물가폭에 허리 휨다

물가를 감안한 가계의 실질소득이 작년 동기 수준에서 전혀 늘지 않은 가운데 금리나 환율 급등으로 이자나 해외송금 등 소비비지출은 급증해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심각하게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실질소비도 감소세가 심화되면서 관련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최악을 기록해 국민들이 위기를 견디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3분기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2인 이상 전국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46만5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5% 증가했다.

하지만 물가가 오르면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소득 증가율은 0.0%

로 지난 2005년 3분기의 -0.2%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전국가구의 실질소득은 작년 3분기에 증가율이 4.9%였고 경제위기가 일부 반영됐던 올해 2분기에 0.3%를 기록했다.

경상소득 가운데 근로소득은 5.2%, 사업소득은 1.1%, 재산소득은 7.3% 각각 증가했으며 이전소득은 노후소득보장 정책 도입 등 공적이전소득이 늘어 12.7%가 증가했다.

소비 위축은 더 심해 전국가구의 3분기 월평균 소비지출은 229만5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 늘어났지만 실질소비비는 2.4%가 감소, 관련통계가 나온 2003년 이후 가장 낮았다.

지출 중에서는 식료품비가 26.7%,

교육비가 14.1% 늘면서 수치를 끌어올렸지만 교양오락(-7.3%), 의류신발(-1.5%), 통신비(-1.8%) 등은 전년 동기 대비 줄었다.

비소비지출은 50만4천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0.3%나 늘었다. 특히 금리와 환율상승 영향으로 지급이자 및 교육비·생활비송금 항목이 17.2%나 증가해 최근의 금융시장 불안이 국민들의 실생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계수지 흑자액은 66만6천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1.5%가 늘고 흑자율은 22.5%로 1.4% 포인트 상승했지만 처분가능소득 대비 소비지출의 비율인 평균소비성향은 77.5%로 1.4% 포인트 낮아지면서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연합뉴스

무리한 ‘친환경 인증’ 불신 키운다

광주·전남 민간기관 전국 평균 건수의 5배

광주·전남지역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민간 인증기관의 평균 인증 건수가 전국 평균 건수의 5배에 이르는 등 인증기관의 과도한 업무가 ‘부실 인증’을 불러 이 지역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것으로 지적됐다.

전남발전연구원이 21일 발간한 ‘전남 친환경농산물 유통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인증 실적이 있는 광주·전남지역 친환경농산물 민간 인증기관은 전남대·조선대 등 대학

소속 인증기관 5곳과 사설 민간기구 등 모두 9곳이다. 전국 34개 민간 인증기구 가운데 26%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인증 실적의 경우 지난해 전국 민간 기관 총 인증건수 6천60건 중 이 지역 민간기관 인증건수는 3천915건으로 전국의 64%를 차지해 인증기관 숫자에 비해 인증건수가 과도하게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지난해 이 지역 민간 인증기관 1곳당 평균 인증 건수는 435건으로 광주·전남지역을 제외한 전국 민간기관 1곳당 인증 건수 85.8건의 5배를 웃돌았다.

특히 최근 검찰수사에서 적발된 한 민간 기관은 상근 근무자 11명이 지난해 1인당 106.5건을 인증했으며 전체 인증건수는 1천171건에 달해 지난해 이 지역 민간기관 인증실적의 30%를 이 업체가 담당할 정도로 인증 신청이 집중됐다.

민간 인증건수가 많은 이유는 전남지역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건수가 5년전에 비해 21.7배나 증가했고 농가호수는 62배, 면적은 59배로

늘어나면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이를 담당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인증 신청 폭증은 ‘부실 인증’을 불러왔으며 유통과정에 농약이 검출되기도 하고 인증과 관련해 친환경농자재를 판매하거나 인증숫자를 늘려 인증수입을 확대하는 등 부작용의 원인이 됐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디스크? 수술없이 치료하는 척추 추나 클리닉
청연한의원

중·고생 거름농학 학습특강!
개강: 2008년 12월 30일(화)
2인 1실 기숙사, Power 강사진
호남한샘학원

일급 사형수에서 국민의 대통령이 되기까지, 남편 김대중과 '동행' 해온 46년의 내밀한 현대사

김대중 대통령과 형사적인 풍자대미 삶의 동반자 이희호, 마스트레이디 리조의 산산했던 삶과 순정환 꿈을 이야기하다!

동행